
국립국어원 소식

1. 주요 회의 개최 소식

1.1.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회의 개최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를 위한 공동 위원회 제65차 회의가 2005년 11월 2일에 열렸고, 제66차 회의가 2005년 11월 30일에 열렸다. 제65차 회의와 제66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65차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결정안

(2005. 11. 2.)

[인 명]

- 그럽스, 로버트 Robert H. Grubbs 1942~ 미국 화학자. 캘리포니아공대 교수. 쇼뱅, 슈룩과 함께 2005년 노벨 화학상 수상.
- 글라우버, 로이 Roy J. Glauber 1925~ 미국 물리학자. 200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 나카우치 이사오 中内功 1922~2005 일본 다이에 창업자.
- 라토르튀르, 제라르 Gerard Latortur 1934~ 아이티 총리.
- 랩, 랠프 Ralph Lapp 1916~2004 미국 핵물리학자.
- 리 제 李 傑 Li Jie 1940~ 대만 국방부장.
- 마르친키에비치, 카지미에시 Kazimierz Marcinkiewicz 1959~ 폴란드 정치가.
- 마셜, 배리 Barry J. Marshall 1951~ 오스트레일리아 미생물학자. 로빈 워런과 함께 2005년 노벨 의학·생리학상 공동 수상.

- 마에하라 세이지 前原誠司 1962~ 일본 정치가.
- 모리스, 워릭 Warwick Morris 1948~ 주한 영국 대사.
- 무타리카, 빙구 와 Bingu wa Mutharika 1934~ 말라위 대통령.
- 미셸, 제임스 엘릭스 James Alix Michel 1944~ 세이셸 대통령.
- 버시바우, 알렉산더 러셀 Alexander Russel Vershbow 1952~ 주한 미국 대사.
- 버냉키, 벤 Ben S. Bernanke 1953~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 번스, 윌리엄 William J. Burns ?~ 미국 국무부 차관보(중동 담당).
- 베르베크, 핼 Pim Verbeek 1956~ 한국 축구 대표 코치.
- 베스트벨레, 기도 Guido Westerwelle 1960~ 독일 정치가.
- 벨, 버웰 Burwell B. Bell 1946~ 주유럽 미육군 사령관.
- 비젠탈, 사이먼 Simon Wiesenthal 1908~2005 나치스 전범 추적의 세계적 활동가.
- 샤이너, 조셋 (시런) Josette (Sheeran) Shiner 1954~ 미국 국무부 차관(경제·농업 담당).
- 셸링, 토머스 Thomas C. Schelling 1921~ 미국 이론 경제학자. 로버트 아우만과 2005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
- 쇼뱅, 이브 Yves Chauvin 1930~ 프랑스 화학자. 그럽스, 슈록과 함께 2005년 노벨 화학상 수상.
- 슈록, 리처드 Richard R. Schrock 1945~ 미국 화학자. 쇼뱅, 그럽스와 함께 2005년 노벨 화학상 수상.
- 아드보카트, 딕 Dick Advocaat 1947~ 한국 축구 대표 감독. 네덜란드인.
- 엘바라데이, 모하메드 (모스타파) Mohamed (Mostafa) ElBaradei 1942~ IAEA 사무국장.
- 예텐메키, 안넬리 Anneli Jäätteenmäki 1955~ 핀란드 정치가.
- 예하누로프, 유리 Yury Yekhanurov 1947~ 우크라이나 총리.
- 아우만, 로버트 Robert J. Aumann 1930~ 미국의 이론 경제학자. 토머스 셸링과 2005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

- 오보테, (아폴로) 밀턴 (Apollo) Milton Obote 1924~2005 우간다 정치가.
- 와이즈, 로버트 Robert Wise 1914~2005 미국 영화감독.
- 우드워드, 조앤 Joanne Woodward 1930~ 미국 여배우.
- 워런, 로빈 J. Robin Warren 1937~ 오스트레일리아 병리학자. 배리 마셜과 함께 2005년 노벨 의학 생리학상 공동 수상.
- 위, 미셸 Michelle Wie 한국명 위성미(魏聖美) 1989~ 미국 여자 골프 선수.
- 유수프, 압둘라히 Abdullahi Yusuf 1934~ 소말리아 대통령.
- 카친스키, 레흐 Lech Kaczyński 1949~ 폴란드 대통령.
- 카친스키, 야로스와프 Jarosław Kaczyński 1948~ 폴란드 정치가.
- 투르바이 아얄라, 훌리오 세사르 Julio César Turbay Ayala 별칭 투르코 Turco 1916~2005 콜롬비아 정치가.
- 티에보, 필리프 Philippe Thiébaud 1955~ 주한 프랑스 대사.
- 폴리슨, 데이비드 R. David Paulison 1947~ 미국 FEMA(연방긴급사태관리국) 국장.
- 핀터, 해럴드 Harold Pinter 본명 다 핀타 da Pinta 1930~ 영국 극작가, 연출가, 시인, 배우.
-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Khalifa bin Zayed(=Zaid) al-Nahyan (=Nahayan) 1948~ 아랍 에미리트 연방(UAE) 대통령.
- 헨슈, 테오도어 Theodor W. Hänsch 1941~ 독일 물리학자. 존 홀 연구원과 함께 200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 헬드, 앨 Al Held 1928~2005 미국 추상화가.
- 호나우디뉴 Ronaldinho 1979~ 세계 MVP. 브라질 축구 대표 선수
- 홀, 존 John L. Hall 1934~ 미국 물리학자. 테오도어 헨슈 교수와 함께 200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지 명]

- 산차흐 Tzanchaj 과테말라시티에서 서쪽 180km에 위치한 마을.
- 서우얼 首爾 서울의 중국어 명칭.

- 파나바흐 Panabaj 수도 과테말라시에서 서쪽 180km에 위치한 원주민 마을.

[일반 용어]

- 아이 에이 이 에이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ohamed El Baradei)와 함께 2005년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Helicobacter pylori 파일로리(유문) 균의 정식 이름.

제66차 정부연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결정안

(2005. 11. 30.)

[인 명]

- 구리아, (호세) 앙헬 (José) Angel Gurría 195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 구쓰카케 데쓰오 沓掛哲男 1929~ 일본 국가공안위원장.
- 기시다 쓰나타로 岸田綱太郎 1920~ 일본 루이 파스퇴르 의학연구센터 이사장.
- 다이애나 비 Princess of Wales Diana 본명 레이디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 Lady Diana (Frances) Spencer 1961~97 영국 찰스 왕세자비(1981~96).
- 뒤라스, 마르그리트 Marguerite Duras 본명 마르그리트 도나디외 Marguerite Donnadiou 1914~96 프랑스 여류 소설가.
- 래틀, 사이먼 Simon Rattle 1954~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
- 리치필드, (토머스) 패트릭 (존 앤슨), 5대 백작 (Thomas) Patrick (John Anson) Lichfield, 5th Earl of 1939~2005 사진 작가.
- 미타라이 후지오 御手洗富士夫 1934~ 일본 게이단련(経團連) 회장.
- 바진 巴金 Ba Jin 본명 리페이간(李芾甘), 리야오탕(李堯棠) 별명

왕원후이(王文慧), 비진(比金), 위이(余一), 위싼(余三), 위우(余五), 위치(余七), 어우양징룽(歐陽鏡容), 바비(巴比) 1904~ 2005 중국 작가, 에스페란토 학자.

- 보노 (폴 휴슨) Bono (Paul Hewson) 1960~ 아일랜드 가수, 작곡가.
- 부아클레르, 앙드레 André Boisclair 1965~ 캐나다 퀘벡당 당수.
- 안토노바, 이리나 Irina Antonova 1921~ 러시아 푸슈킨 미술관 관장.
- 야코블레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Aleksandr N(ikolayevich) Yakovlev 1923~2005 구 소련 개혁파 정치가.
- 얼리토, 새뮤얼 Samuel Alito Jr. 1950~ 미국 항소법원 판사.
- 존슨설리프, 엘런 Ellen Johnson-Sirleaf 1939~ 라이베리아 대통령.
- 투스크, 도날트 Donald Tusk 1956~ 폴란드 정치가.
- 파트베르크, 에바 Eva Padberg 1979~ 독일 슈퍼 모델.
- 파크스, 로자 (리) Rosa (Lee) Parks 1913~2005 미국 민권운동가.
- 페레츠, 아미르 Amir Peretz 1951~ 이스라엘 노동당 당수.
- 플라체크, 마티아스 Matthias Platzeck 1953~ 독일 사회민주당(SPD) 당수.
- 하르트비히, 볼프강 Wolfgang Hartwig ?~ 독일 바이엘 헬스케어 사장.
- 휘트먼, 마거릿[멕] Margaret [Meg] Whitman 1956~ 미국 이베이 최고경영자.

[지 명]

- 네룽그리 Neryungri Н э р ю н г р и 러시아 동부, 사하 공화국 남 야쿠트 탄전의 중심 도시.
- 비제바노 Vigevano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Lombardia) 주 서쪽 파비아(Pavia) 현 북서부의 도시.
- 터스키기 Tuskegee 미국 남부, 앨라배마 주 동쪽의 도시.
- 핀마나 Pyinmana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Mandalay) 관구 남부의 상업 도시.

[일반 용어]

- 아이팟 iPod 동영상 휴대용 플레이어. 미국 애플 컴퓨터에서 만든 상품 이름.
- 타미플루 Tamiflu 항(抗)바이러스 약 인산 오셀타미비르(Osetamivir)의 상품명. 조류 인플루엔자(AI)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탑건 top gun 공군 최우수 사격 조종사.

1.2. 국립국어원, 에스비에스(SBS)와 방송 언어 공동 연구 협약 체결



왼쪽: SBS 안국정 사장, 오른쪽: 국립국어원 남기심 원장

국립국어원(원장: 남기심)과 (주)SBS(사장: 안국정)는 559돌 한글날을 맞아 방송 언어의 발전이 방송과 국어의 발전에 밑바탕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0월 5일 (수) 오전 11:30에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국어원과 (주)SBS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의 우리말을 재미있고 친숙한 존재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할 생각이다.

1. 예능,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 언어 연구
2. 우리말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 개발

국민 누구나 즐겨 보는 예능·오락 프로그램 등의 언어를 대상으로 재미 있으면서도 유익한 언어의 사용 방법을 연구하며, 우리말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여, 국민이 우리말을 더욱 재미있고 친숙하게 여기도록 할 생각이다.

1.3. 국립국어원, 엔에이치엔(주)(네이버)과 업무 협정(서비스 계약) 체결



왼쪽: 국립국어원 김하수 언어정책부장, 오른쪽: 엔에이치엔(주) 대표

국립국어원은 각종 사전 자료, 신어를 비롯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양질의 국어 정보를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검색 사이트에 제공하여 바람직한 국어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11월 1일 국립국어원 회의실에서는 국립국어원 관계자와 네이버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엔에이치엔(주)의 관계자가 만나 이에 대한 업무 협정(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에서는 국립국어원과 엔에

이치엔(주) 간의 자료 제공, 이용 상황에 대한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정서를 교환하였으며, 이 협정으로 국립국어원은 지속적으로 인터넷 상에 바람직한 국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협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국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어 관련 자료(사전 관련 자료, 신어, 순화 자료, 우리말 질의응답, 우리말 퀴즈, 주요 어휘 용례, 남북한 어휘 자료 등)를 네이버 사전 검색 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엔에이치엔(주)에 제공함.

둘째, 엔에이치엔(주)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공하여 네이버 사전 검색, 네이버 통합 검색 사이트 등에서 서비스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사를 진행함.

셋째, 엔에이치엔(주)에서는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이용한 유형을 분석한 통계 및 분석 정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언어 사용 자료를 국립국어원에 제공함.

넷째,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엔에이치엔(주)에 제공된 자료가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친 후 서비스함.

다섯째,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번 달부터 관련 자료를 엔에이치엔(주)에 단계적으로 제공하며 엔에이치엔(주)에서는 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200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1.4. 국립국어원 월례 발표회

국립국어원은 직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월례 발표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의 다음과 같이 세 번의 월례 발표회를 가졌다.

(1) 언어 정책 집중 토론회 제9회 개최

- 발표자: 이광석(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일시: 2005. 9. 29. 16:00~18:00

- 주제: 어문 정책, 민간화의 탐색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2) 언어 정책 집중 토론회 제10회 개최

- 발표자: 박병일(한국개발 연구6본부 본부장)
- 일시: 2005. 10. 18. 14:00~16:00
- 주제: 여론 조사 질문지 작성법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3) 언어 정책 집중 토론회 제11회 개최

- 발표자: 최경봉(원광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 일시: 2005. 12. 2. 14:00~16:00
- 주제: 우리말 문화의 발전과 표준어
- 장소: 국립국어원 중1층 세미나실

2. 국어 진흥 활동

2.1.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 운영

국립국어원은 함부로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걸러 내고, 우리말을 더 다듬어 가꾸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운동은 2004년 7월 5일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를 마련하여 운영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국립국어원이 다듬어 써야 할 외래어와 외국어를 매주 하나씩 선정하여 발표하면 일반 국민이 그 말을 대신할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2005년 9월 초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이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 다듬은 말은 다음과 같다.

다듬은 말	뜻	다듬은 말
선텩 (sunting)	창문, 자동차 등의 창유리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기 위해 유리에 덧댄 검은색의 얇은 필름. 또는 그런 필름을 덧대는 일.	빛가림
그룹 홈 (group home)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숙자, 장애인, 가출 청소년 등이 자립할 때까지 가족 같은 분위기에 서 공동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소규모 시설. 또는 그런 봉사 활동이나 제도.	자활꿈터
원톱 (one top)	영화나 드라마 따위에서 홀로 주연을 맡아서 극의 전반적인 흐름을 책임지는 배우. 또는 그런 일.	홀로주연
디펜딩 챔피언 (defending champion)	전년도 또는 지난 대회 of 우승자나 우승 단체.	우승지킴이
파일럿 프로그램 (pilot program)	시험 삼아 내보내는 프로그램. 또는 시험 방송.	맛보기 프로그램
스포일러 (spoiler)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영화의 주요한 내용, 특히 결말을 미리 알려서 영화 보는 재미를 크게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	영화헤살꾼
로고송 (logo song)	특정 상품, 회사, 개인을 널리 알리는 데 쓰는 노래.	상징노래
풀 세트 (full set)	관련 있는 물건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	다모음
컬트 (cult)	소수의 조직화된 신앙 집단.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엔 낯설고, 괴이쩍은 면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찬사를 보내거나 좋아하는, 독특한 문화.	소수취향
드레스 코드 (dress code)	어떤 모임의 목적, 시간, 만나는 사람 등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옷차림새.	표준옷차림

2.2.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립국어원이 2005년 10월~12월 동안 일반 국민을 상대로 국어문화학

교를 운영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원내 국어문화학교

‘원내 국어문화학교’ 국어반 강좌는 공무원·출판인·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에 2회, 11월에 1회(5일간 35시간씩) 열려서 모두 363명이 국어반 과정을 수료하였다.

열린 시기와 수강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제134기 2005. 10. 10.~10. 14. 공무원·출판인·일반인반 114명

제135기 2005. 10. 17.~10. 21. 공무원·출판인·일반인반 110명

제136기 2005. 11. 14.~11. 18. 공무원·출판인·일반인반 139명

2005년 ‘원내 국어문화학교’ 국어반 강좌는 모두 17회(공무원·출판인·일반인 대상 13회, 교사반 4회) 열렸고 강의를 들은 사람은 모두 1,618명이다.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10월에 20회 1,221명, 11월에 14회 1,843명, 12월에 4회 233명으로 석 달간 강의를 나간 횟수는 38회, 강의를 들은 사람은 3,297명이다.

2005년도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가 열린 횟수를 모두 합하면 184회이고 강의를 들은 사람은 15,120명이다.

2.3. 해외 연구 동향 파악 출장

국립국어원의 조남호 연구관과 김선철 연구사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사전 편찬과 말뭉치 구축의 동향을 살피고자 영국에 출장을 다녀왔다.

(1) 출장 목적

‘사전 편찬’, ‘말뭉치 언어학’의 선진국이며, 특히 ‘음성 말뭉치 구축’의

발원지이자 선진국인 영국의 각 기관을 방문하여 현황, 최신 경향 및 신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

(2) 출장 기간: 2005. 10. 22.(토)~10. 29.(토)

(3) 출장 지역: 영국(런던, 옥스포드)

(4) 출장자

- 조남호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 학예연구관
- 김선철 국립국어원 국어생활부 학예연구사

(5) 활동 내용

(가) 사전 편찬 관련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 내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 편집팀, 교육용 사전 편집팀, 외국인용 영어 교육 사전 편집팀, 이중 언어 사전 편집팀, 교역(trade) 사전 편집팀을 방문, 면담하여 각 사전의 편찬 방침과 방법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었으며 최근에 새로 개발된 사전 편집용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음

(나) 음성 말뭉치 구축 관련

런던대학교 음성학 실험실(UCL Phonetics Lab)을 방문하여 각종 음성학 연구용 음성 말뭉치의 현황과 구축 방법론 등을 소개받았음. 음성학 실험실에서 판매하는 음성 말뭉치 3종 구매.

(다) 텍스트 말뭉치 관리 관련

영국 국가 말뭉치(British National Corpus) 관리 기관을 방문하여 조직 현황, 관리 방침,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개받았음. 말뭉치 2종 구매.

3. ‘한글 문화 체험기 공모’ 심사 결과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559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글 관련 문화 행사를 통해 느낀 다양한 체험 수기를 공모하였다. 청소년들의 한글 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한글 문화 정착을 위하여 올해 시범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다수 응모하였고, 심사 위원 심사 결과 한글날을 통해 세대 간의 화해를 이 야기한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심사 결과는 11월 17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 최우수(문화관광부장관상 / 문화상품권 30만원)
 - 사랑하는 할머니, 그리고 한글(이현비)

- 우수(국립국어원장상 / 문화상품권 각 15만원)
 - 초 등 부: 세종대왕, 한글이 덩실덩실 춤추다(이지은)
 - 중고등부: 한글! 2005년 가을, 새롭게 만나다(곽윤경)

- 장려(세종대왕기념사업회장상 /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초 등 부: • 외솔백일장을 다녀와서(안혜빈)
• 모두가 함께 가꾸는 한글 정원(주혜빈)
 - 중고등부: • 우리말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조성식)
• 559돌 우리의 자긍심(이지원)

다음에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이현비(대전예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글을 소개한다.

사랑하는 할머니 그리고 한글

이 현 비

(대전예술고등학교 1학년)

잠이 마구 쏟아지는 5교시다. 하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국어 시간이다.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쪽 읽어 나가실 때마다 내 눈꺼풀은 차츰차츰 더 무거워진다. 그러다가 눈이 확 뜨인 것은 선생님께서 교탁을 두어 번 탁탁 두드리시면서 새로운 화제에 대해 말씀해 나가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에헴. 국어 시간이 아무리 즐린다고 해도 너희들 너무 심하구나. 조금 있으면 559돌 한글날이 찾아온단다. 너희들 그날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한글날 기념 공연을 보거나 한글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 주신 세종대왕님을 기리면서 뜻 깊게 보내야 한단다. 알았니? 아까 얼핏 듣다 보니 그날 삼삼오오 모여 노래방 가고 어디 가고 한단데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나는 줄 알아라.”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다시 수업을 이어 나가셨다. 국어 시간이 끝나고 체육 시간, 과학 시간, 자습 시간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썰렁한 집에는 할머니만 혼자 계셨다. 아버지는 친구 분들과 식사 약속으로 나가셨고, 어머니는 동창 모임으로 집을 비우신 상태였다. 그나마 동생도 친구 생일 파티로 나갔으니, 할머니는 외로이 집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다. 학교 수업으로 고단해진 몸을 이끌고 “다녀왔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건성으로 던지고 나는 얼른 씻고 내 방 침대에 몸을 벌러덩 눕혔다. 예상은 했다. 할머니는 쫄쫄 내 뒤를 따라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말을 붙이셨다.

“학교는 재미있었누? 점심은 많이 먹었고? 할미랑 산책 좀 하구 올래?”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체하고 등을 뒤로 살며시 돌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붙이셨다.

“할미가 감자 썰 줄까? 고구마가 더 좋누?”

그래도 내가 아무 말이 없자 할머니는 방을 나가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다.

“에구, 그래 이 할미가 그리도 귀찮누? 하긴 이 할미도 많이 늙어서 이 집에서 짐밖에 더 되겠누?”

할머니가 혼잣말로 하시는 말에 나는 알게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 할머니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노인정에 자주 출입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처럼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난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 나가시는 할머니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로 하였다. 한글날인데 놀지도 못하고, 세종대왕님의 고마움을 기리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던 국어 선생님을 불평해 대었다. 난 또 속으로 ‘할머니가 호통을 치시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꾸중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항상 이런 식이었으니깐 말이다. 할머니가 나에게 말을 붙이셔서 내가 말을 해 나가면 항상 할머니는 나에게 말은 가려서 하는 것이라며 혼을 내시곤 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면서 나는 말을 조심성 있게 하는 법을 배워 나갔지만, 오늘은 국어 선생님의 달갑잖은 이야기 말고는 별다른 화제가 없었기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목이 킁킁하신지 크음 하고 큰기침을 하셨다. ‘아. 이제 또 시작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냄비에서 잘 익고 있을 감자를 떠올리기로 하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다. 오늘은 무엇인가 달랐다. 한동안 지나긴 침묵이 이어지다가 냄비에서 눈을 떴고 할머니 얼굴을 쳐다보자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셨다.

“험비야. 이 할미랑 한글날 기념식 같이 가 보지 않겠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었는데 나는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대답해 버렸다.

한글날 아침, 나는 큰 후회를 하였다.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해야만 했고, 공휴일의 나른하고 달콤한 낮잠도 즐길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한 약속이기에 나는 꼭 지켜야만 했다. 오랜만에 할머니와 단둘이 즐기는 시간이었다. 세종대왕릉 정자각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펍 아름다웠다. 역시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달력은 가을을 가리키고 있었기에, 풍경도 예쁜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학교랑 독서실에서 공부에 쫓기는 생활을 한 탓에 제대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뜻밖에 여유로움을 맘껏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할머니가 무척 고맷다. 세종대왕릉 정자각에 도착해서 한글창간단이 월인천강지곡을 공연하는 것을 감상하였다.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랐지만, 색색의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의 뜨거운 열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다. 다음은 할머니와 함께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도 보았다. 왜 나도 모르게 이때 가슴 찡했는지 ‘이래서 나도 한국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이리저리 움직이시면서 다리가 아파 오시는지 가끔씩 큰 숨을 내쉬었다.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할머니께 죄송스러웠다. 세종대왕의 큰 동상을 보고 있자니, 어딘지 모르게 우리나라의 위대함이 느껴지고 세종대왕님의 고마움도 느껴졌다. 한동안 그렇게 동상을 보면서 멀거니 서 있었다. 뒤돌아서 가려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몇 분이고 꼳꼳이 서 계셨다.

“할머니! 우리 이제 가요.”

할머니는 그제야 발걸음을 떼셨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할머니의 눈시울은 불그레해져 있었다. 영문을 몰라 나는 어찌해야 할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할머니는 괜찮다며 세종대왕님한테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다며 나를 안심시키셨다. 그러곤 할머니는 입을 떼셨다.

“현비야! 내가 왜 여기에 니를 데리고 왔는지 아누? 니가 한글의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데리고 온 기라. 니도 이 기념식 보면서 가슴이 짠해 오지. 그럼 된 기라. 그런 니도 마이 느낀 기라. 나는 할미 댁 모를 까다. 할미는 어려서는 글이란 걸 몰랐대이.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여자는 그

릴 수가 없었대이. 그러다가 나온 게 한글이였대이. 근데 한글은 ‘암글’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나게 천시받다가 나중에는 여자들도 배울 수 있게 된 기라. 내는 나이가 다 먹어서 글을 배웠지만, 그래도 이 할미가 지금 이렇게 신문도 볼 수 있고 글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한글 때문이라카이. 나는 세종대왕님한테 진짜 감사한대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는 비로소 한글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어려서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글을 배우시는지 옆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는 ‘가나다’를 우리 어머니에게 배우셨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언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지 할머니는 글 배우는 것을 꼭 힘들어하셨다. 하지만 글을 읽어 보겠다는 집념 하나로 할머니는 지긋한 연세로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글을 다 깨우치셨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왜 불그레해지셨는지 그제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한글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한글날 기념식에 잘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힘든 몸을 이끌고 와 주신 할머니께 감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문득, 지난날 할머니가 은행에서 겪었던 일이 기억났다. 하루는 할머니가 돈을 부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고 한다. 글을 써야 하는데 차마 옆 사람에게 부탁하기가 무었해서 할머니는 손을 다친 척을 하셨다고 한다. 아프지도 않은 손에 봉대를 친친 동여매고 옆 사람에게 손이 아파 글을 못 쓴다며 부탁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 설움에 할머니는 한글을 그렇게 악착스럽게 깨우치셨는지도 모른다.

한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글자! 한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 할머니와 함께 기념식에 다녀오면서 나도 한글의 소중함을 깊게 느꼈다. 할머니께 자신감 있는 인생을 선물한 한글……. 나 또한 정말 소중한 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며 잊고 살아가고 있었나 보다.

4. 한국어 쉽게 배우기 노랫말 공모 결과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쉽게 배우기 노랫말’을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입상자를 선정하고 그 시상식을 2005년 11월 2일(수) 오후 3시~4시 국립국어원 중1층 세미나실에서 거행하였다.

-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 김상희(서울 마포구 도화동)
- 우수상 2명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임지훈(서울 구남초등학교 6학년) / 인사
 - 김기현(포항시 남구 지곡동) / 가나다라송
- 가작 7명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정명숙(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 궁 나들이 재미있어요
 - 조호인(서울 영도초등학교 6학년) / 정말 맛있다.
 - 이정훈(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 웃음
 - 한광주(서울 도봉구 창4동) / 궁금하네요
 - 박준란(경북 칠곡군 왜관읍) / 사계절
 - 강운정(서울 도봉구 쌍문1동) / 토실토실 토끼는
 - 오현정(서울 월촌초등학교 5학년) / 가나다라마바사

수상한 노랫말 중 일부는 우리말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2』 발간

국립국어원에서는 외국인이 쉽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체계 편-』(신국판/570쪽/35,000원/커뮤니케이션북스 발행),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용법 편-』(변형신국판/906쪽/45,000원/커뮤니케이션북스 발행)을 발간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2』의 편찬은 외국인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칠 수 있는 표준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2000년에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편찬을 위한 기초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2001년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 8명(편찬 위원: 김정숙, 김인균, 박동호, 이병규, 이해영, 정희정, 최정순, 허용)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찬에 들어갔다. 또 2002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집필 지침과 표제어 목록을 결정하였고, 2003년에는 1차 표제어 목록 600여 개의 용법을, 2004년에는 2차 표제어 목록 600여 개의 용법을 기술하였으며, 2005년에 교정, 교열하여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2』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물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한국어 교재 편찬자들에게 교수학습에 필요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의 표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책의 특징은 전통적인 국어 문법의 기술 방향과 달리 문법 요소에 대한 사용 맥락 정보가 풍부하게 제시되었다는 점, 다른 언어의 문법과 대조하여 기술하였다는 점,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오류를 분석하여 반영하였다는 점, 문법 사항을 쉬운 말로 설명하였다는 점,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어 문법을 체계화하였다는 점, 풍부한 용례를 수록하였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특히 2권 ‘용법 편’은 표제어 900여 개, 가표제어 500여 개의 문법 형태에 대한 의미, 결합 정보, 사용 맥락, 오류 양상 등을 일일이 용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두 책을 2006년에는 영어로, 2007년에는 타이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하여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6. 국립국어원 인사

■ 임용(2005. 11. 21.)

- 조태린: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 학예연구사
- 김원희: 국립국어원 국어생활부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이 만드는 계간지 『새국어생활』이 새로워졌습니다.
2만 원만 내시면 한국어에 관한 가장 권위 있고 앞서 가는 정보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새국어생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2005년부터 특집 좌담회와 인터뷰 난을 만들어 좀 더 생생한 한국어의 현장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 인터넷의 발달,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한국어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고 변화 방향을 제시합니다.
- 세계 속의 한국어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새국어생활』을 정기 구독하고 싶으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02-3700-1201번으로 전화만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 먼저 신한은행 614-02-031408(예금주 박영률)이나 지로 번호 3144167로 1년 구독료 20,000원을 송금해 주세요. 전화 02-3700-1201이나 전자 우편 bookey@eeel.net로 책을 받아 보실 분의 성함,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곧 발송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식공작소, 전화 02-3700-1201,
전자 우편 bookey@eeel.net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